

하이파이저널

HI-FI JOURNAL

2

특집 1999 이해의 오디오 베스트 10

VIENNA ACOUSTICS

MAHLER



VIENNA ACOUSTICS MAHLER

₩12,200,000

- 구성: 3웨이 5스피커
- 인클로저: 베이스리플렉스형
- 사용유닛: 우퍼 25cm 콘형×2, 스위처 17.8cm 콘형×2, 트위터 3cm 돔형
- 재생주파수대역: 22Hz~25kHz
- 임피던스: 6Ω ● 출력음압레벨: 90dB
- 크기: W21.8×H130×D46.5cm
- 무게: 68kg
- 수입원: 샘에너지(02-780-0905)

가히 환상적인 장대한 음장감이... 정확하고 빠른 응답특성도 독보적

박용태/오디오 평론가

꽤 오래전에, 그러니까 30여 년 전 일이다.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취기가 오른 좌중에 실속없는 논쟁이 끼어들자 한 친구가 단호히 말했다. '하느님이 성인 남녀를 만들었으니 알이 아닌 닭이 먼저' 라고 그럴싸하게 말은 했지만 진화론 차원에서 보자면 이 말은 정답일 수가 없다. 마찬가지로 오디오도 개성이 있는 한 누구든 좋아할 수도, 싫어할 수도 있다는 것과 조합에 따라, 공간에 따라 변수가 판을 치는 한 오디오에서 분명한 답이란 없을 지도 모른다. 하지만 근본적으로 오디오를 실제의 악기로 이해하느냐, 제2의 악기로 보느냐에 따라 음의 가치관이 정해졌을 것이므로 자연스럽게 자기만의 취향이 되고 고집이 되었을 것이다. 필자도 예외가 아니어서 그런 점이 소신이 되기도 하고 경계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 그중의 고집 하나가 손상을 입은 것이다. 크든 작든 톨보이형을 기피해 온 터에 이번 베스트 10 선정에서 말러를 추천한 것은 음의 호사를 장대한 음폭에서 찾는 필자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자가반란이었기 때문이다. 어쨌거나 기왕에 이 지경이

되었으니 그 곡절을 주체삼아 글을 쓰기로 작정했다.

알려진 바와 같이 비엔나 어쿠스틱스는 음악의 나라 오스트리아의 빈에 있는 젊은이들의 회사이다. 자사의 스피커에 모두 음악계 거장들의 이름을 붙인 것은 위상이 아닌 자신감의 표출이라는 것을 입증이라도 하듯 말러의 응답특성은 한마디로 영특했다.

동사 최상의 모델인 말러는 키가 130cm에 이르는 대형기로서 인클로저의 마무리가 대단히 세련되고 고급스럽다. 설계만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답게 모든 것이 호화로운데 인클로저 측면에 장착된 2개의 우퍼에는 독일 예톤사제로 유명한 허니콤 진동판이 사용되었다. 이 우퍼는 정확하고 빠른 응답특성이 독보적인데, 22Hz에서 70Hz까지의 주파수를 담당하도록 설계된 사실상의 서브우퍼이기도 하다. 그리고 70Hz~4kHz까지의 주파수 대역을 커버하는 2개의 미드 베이스는 덴마크 스칸스피크사 제품이다. 이 유닛 또한 공기로 말린 페이퍼 콘에 카본 섬유를 섞은 것으로 그 구조적, 물리적 특성이 매우 우수하다.

추천

김 남 김신규 나병욱 나상운 박상섭
박용태 배성동 오만호 정우광 최성욱

시스템의 꽃인 트위터 역시 스칸스피크사의 제품으로, 합성수지로 코팅된 실크 돔형을 채택하고 있다. 이 트위터도 직수가 없다 할 만큼 뛰어난 퀄리티와 질감을 가진 유닛인데 고역의 안전성을 위해 나사를 사용하지 않고 인클로저에 고정시키고 있다. 특히 각 유닛은 기성품이 아니라 동사의 사양에 맞춰 조정된 이른바 '비엔나 어쿠스틱 버전'이라고 한다.

크로스오버 네트워크도 말러 설계에 가장 잘 맞는 부품이 선택되고 프런트와 리어 배플은 4cm 두께의 고강도 MDF로 만들어졌는데 유닛 파트는 각각 다른 공간에 수납해서 공진을 막고 있다. 감도는 90dB로 높은 편이지만 메이커에서는 만족스러운 감상을 위해 50~500W까지의 고급 앰프를 사용토록 권장하고 있다. 그래서 MBL 1621 트랜스포트와 dCS 열가 컨버터, 그리고 실바톤 C-103(베

터리 구동) 진공관 프리와 MBL 9006 파워 앰프 등 하이엔드 기기들과 조합해보았다.

베토벤의 로망스 제2번을 주커만의 바이올린으로 듣는 순간, 한 줄기 현의 울림만으로 천상의 소리를 다 얻은 기분이었다. 까칠까칠하게 이는 미세한 표정을 잃지 않는 아름다운 선율이 또 있을까 싶었다. 스타크만의 피아노 연주로 듣는 쇼팽의 마주르카 제11번도 툭툭 튀는 영롱한 터치감과 저역의 기품있는



여운이 매력이다. '오, 신이여 내 애기를 들어보소서'를 노래한 조수미의 매끄럽고 빛나는 목소리와, 푸치니의 '누구도 잠 못이루네'를 부른 파바로티의 윤기있고 역감있는 육성도 각별했다. 재즈에서는 베이스의 육중한 표정과 피아노 리듬의 투명함, 그리고 시리도록 맑은 심벌즈와 드럼 파트의 비트 등이 리얼하게 표현되었다. 베를리오즈의 '환상교향곡' 제5악장에서는 슬로 악기의 경연장과 같은 음색의 명료함

이 돋보이고 유난히 섬세하고 장대한 음장은 가히 환상적이다.

필자의 편견이 만져본 말러의 속살은 고출력 파워앰프를 비롯한 고급 기기들과의 매칭이 가져다 준 보상이기도 하지만, 필자로 하여금 말러와 같은 스피커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오디오와 삶이 서로 마음을 붙이고 동행할 수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었다. 그것은 연인처럼 늘 가슴에 품고 싶은 소리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인지도 모른다.